

중국의 도자기 유물



故송병익宋秉翊선생

	<p>[기증유물] 오채화초문항아리 입지름 11.2cm 기고 13.5cm 바닥지름 16.5cm</p>	<p>[유사유물]</p>
--	--	----------------------

뚜껑이 있는 항아리 혹은 붓을 행구는 필세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채五彩로 화초문 등을 장식하였으며, 항아리의 어깨 양쪽에 강아지모양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바닥에 '대명선덕년제大明宣德年製' 라는 명문이 있는데, 이는 1426년~1435년에 해당된다.

	<p>[기증유물] 봉용문 사각병 뚜껑길이 9.5cm 뚜껑 폭 6.5cm 병높이 20.0cm 병 폭 14.5cm</p>	<p>[유사유물]</p>
--	---	----------------------

사각형 병으로, 차를 담던 통으로 추정된다. 각 면에 봉황과 용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한 면의 어깨쪽에 '강희신해중화당제康熙辛亥中和堂製'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강희 신해년은 1731년에 해당된다.

	<p>[기증유물] 다리미 모양의 청화백자 병 길이 18.0cm 너비 12.0cm 높이 12.0cm</p>	<p>[유사유물]</p>
--	---	----------------------

옛 다리미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많지만, 도자기 다리미의 경우 안에 뜨거운 물을 넣어 모시옷 종류나 고급 비단옷을 조심스럽게 다릴 때 쓰던 용도라는 의견과 장식 병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총괄·기획 강경연
 진 행 강경연, 이강산
 발 행 경남대학교박물관

☎ 055-249-2924, 2922
<http://museum.kyungnam.ac.kr>

경남대학교박물관 특별전시실 (한마미래관 2층)

중국의 도자기 유물

중국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도자기를 만들어 온 나라이다. 그 문화는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일본 등 동양의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이웃해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이 대외 교류의 중심 대상이었고, 중국에서 각종 문화적 산물들을 받아들였다. 그 중에서 도자기는 우리나라 유적지에서 다양하게 출토되며,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역사 속에서 중국과의 교류, 문화 교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 도자기가 우리나라의 도자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에도 중국 도자문화의 역사, 종류, 문화 전파 양상, 가마 등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중국 도자기는 과거인 역사 속에서 뿐 아니라 근대에도 다채로운 모양과 색조로 사랑받는 그릇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번 기증유물 특별전은 시대 구분없이 기증자가 수집한 중국의 도자기 유물을 바탕으로 그 면모를 감상하고자 한다.

중국 도자기의 역사

시기구분	특징
은殷나라시대 주周나라시대	-유약 釉藥을 쓴 도기의 생산 시작.
한漢나라시대 남북조 南北朝시대	-청자를 생산, 생산량 많지 않음. -1,250~1,300°C에서 구워내는 경도 硬陶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됨.
당唐나라시대	-넓은 영토와 화려한 귀족문화의 발달·구축으로 중국 도자기의 소비증가. -각지에 가마 제작량 증가 -웨저우 越州지방의 청자, 상저우 邢州지방의 백자가 유명. -저화도의 아름다운 그림에 초록색, 갈색, 백색의 삼채유를 입힌 형상 당삼채(唐三彩)가 유명.
송宋나라 시대	-중국 도자기 기술이 가장 발달한 시기. -상아와 같은 바탕에 백자를 구운 정요 定窯(河北省 曲陽), 예조 銳彫의 문양에 유약을 칠한 백자를 구운 여요 汝窯(越州)는 북송을 대표하는 명요.
원元나라 시대	-형태의 아름다움에서 채색과 무늬가 발달하는 시기
명明나라시대	-정부의 가마가 구축. -채색과 무늬 기술의 발달. -오수적회 吳須赤繪로 불리는 수출용 도자기의 제작.

청나라시대	-활발한 도자기 생산. -19세기 말 청나라가 멸망→도자기 제조 몰락. -전통의 기술이 많이 소실. -근대 공장으로 이동.
-------	---

중국 도자기의 용도에 따른 종류

중국의 도자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으로 삼은 유물의 종류는 주전자, 향아리, 사각병, 이형제품 등이다. 주전자는 형태적으로 둥근 몸체, 손잡이, 주둥이 그리고 뚜껑으로 이루어진 용기이다. 주로 술이나 차, 물을 따르는데 사용된 생활 속 기물이다. 향아리 혹은 호는 입구가 굽의 크기랑 비슷하고 손이 들어갈 만한 크기를 가진 둥근형태의 도자기를 말하며, 뚜껑이 있는 것도 있다. 병은 크기에 상관없이 입구에 손이 들어가지 않고, 안의 내용물을 부어서 사용하는 용기를 일컫는다. 이형제품은 다리미모양의 장식 도자기이다.

중국 도자기 유물

	[기증유물] 청화백자주전자 입지름 8.5cm 높이 31.8cm 바닥지름 10.0cm		[유사유물] 백자청화꽃과일 무늬 주전자 중국 명나라 높이 26.0cm
백자 바탕에 청화유약으로 장식한 백자 주전자이다. 넓은 입과 가는 목, 불룩한 몸통의 형태를 가지고, 화려한 손잡이를 갖추었다. 몸통 전체에 꽃, 과일 등 다양한 문양을 넣었으며, 무늬는 코발트 안료를 붓에 찍어 섬세하게 그렸다.			
	[기증유물] 손잡이달린 주전자 입지름 7.0cm 기고 20.5cm 바닥지름 6.8cm		[유사유물] 청백자참외모양 주전자 입지름 9.4cm 높이 22.7cm 바닥지름 9.0cm
청백자 주전자이다. 넓고 벌어진 입과 좁아지는 목, 다시 넓어지는 몸통을 가지고 있으며 긴 손잡이가 달려있다. 몸통에는 꽃잎 무늬, 넝쿨무늬 등으로 장식하였다.			